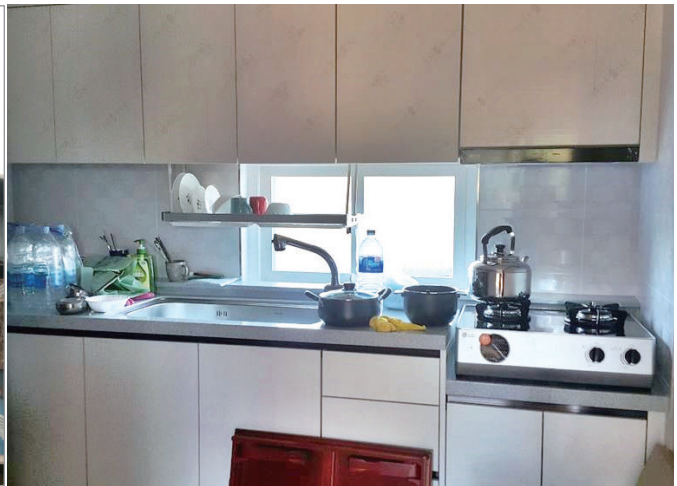


“발빠른 긴급지원으로 위기가정 돕는다”

글·사진 편집부



지난 1월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한 전북 정읍시 컨테이너 박스의 화재 전과 개보수후 주방의 모습.

지난 1월 21일 전북 정읍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오전 10시 30분 쯤 세 식구가 살던 정읍시 감곡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아버지(83)는 어렵게 몸을 피했지만, 지체장애 3급이던 딸(31)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지적장애 2급인 아들(36)은 다행히 인근 교회에 가서 피해가 없었다. 불로 인해 컨테이너 박스와 세간이 전소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동네의 빈 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지만 2~3일 뒤 집 주인이 돌아오면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소식을 접한 아산재단은 재단 산하의 정읍아산병원, 감곡면 사무소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부자(父子)가 거주할 공간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싱크대·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이 시

급해 보였다.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원장인 아산재단의 ‘SOS 복지지원 운영위원회’에서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으로 평가했다. 소실된 컨테이너 박스는 화재 피해를 입은 가족의 친척이 개보수하기로 해서 아산재단은 이들에게 보일러와 싱크대 등 필수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을 긴급 지원했다.

아산재단은 이처럼 금년 1월부터 SOS 복지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수준은 많이 나아졌지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반면 제도적 한계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나 민간단체의 손길이 신속하게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바로 SOS 복

지지원사업의 목적이다.

단기간의 집중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정은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아산재단이 직접 발굴하거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 복지 관련 시설의 추천을 받아 현지조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아산재단의 SOS 복지지원이 결정된 사례는 모두 44건(발굴 14건·추천 30건)으로, 지원 금액은 2억1백만 원이다.



올해 4월 열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아산재단 직원이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모습.

다른 병원의 환자까지 지원 확대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는 강성희(34) 씨는 최근 막막한 심정이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말초성 동정맥 기형이라는 희귀질병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이었다. 그녀 가족의 현재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찬 금액이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사정을 알게 된 주치의가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을 연결해주었고, 그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한 뒤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자산·가족상황 등 적합성을 심사한 끝에 지난 7월 6일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비 지원이 결정된 뒤 강성희 씨는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에 이런 고마운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아프고 지친 저희 가족에게 단비 같은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아산재단은 199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2015년 1월부터는 의료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복지사업을 개편, SOS 의료비 지원 대상을 아산재단 산하 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의 환자로 확대했다. 긴급 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나 가족들은 종종 아산재단에 감사편지를 보내왔다(60~61쪽 참조).

다른 병원 환자의 SOS 의료비는 환자의 의료·경제 상황을 잘 아는 해당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지원을 신청한다. 지원 요청을 받은 아산재단은 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지, 중위소득 80% 이하인지, 가족이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인지 등을 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의료 취약계층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재단 산하 8개 병원에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게시하는 한편 종합사회복지관협회 등을 통해 산하 복지시설에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심포지엄과 의료사회복지사 간담회 등에 참석해 사업을 안내하기도 했다. 금년 7월에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없는 의료기관 중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에도 사업을 홍보한 결과 지난 9월까지 다른 병원에서의 SOS 의료비 신청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가량 늘어났다.

SOS 의료비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아산재단 산하 병원의 환자 1,221명에게 18억1천만 원이, 강동성심병원 등 94개 다른 병원의 환자 377명에게 15억5천여만 원이 집행됐다.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85개의 다른 병원 환자 1,208명에게 44억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